

이국의 새소식

在大韓民國日本國大使館公報文化院
☎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국로 64 Tel. 02.765.3011-3

11

2016 | Vol. 540

가루이자와 시라이토노타키(軽井沢白糸の滝)
Photo : Kazuhisa Ishikawa



양국 문화의 이해를 높이는 중요 행사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 성대히 개최되어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Seoul’이 올해도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개회식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나카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일본에서 일한의원연맹 운영위원장인 나카가와 마사하루(中川正春) 의원이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내빈 모두가 한결같이 양국 국민이 힘을 모아 일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가자는 취지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박삼구 실행위원장과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 실행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올해 한일축제한마당은, 하루 동안 추계 6만 명이 방문하여 열기가 넘치는 가운데 각종 문화 교류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2005년 일한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으로 처음 열렸지만, 그 후도 매년 가을에 서울 시내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지금은 양국 최대의 문화교류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는 도쿄에서도 한일축제한마당이 열리게 되어, 서울과 도쿄의 가을 연례행사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가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의 기념비적인 해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한관계의 새로운 50년을 시작하자는 뜻에서 ‘함께 만들자 새로





운 50년'이라는 공동의 테마를 내걸었습니다. 새로운 50년을 함께 만들자는 생각은 초록색을 기조로 한 올해 포스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한 양국 국민이 각자의 개성을 살리면서, 원처럼 하나가 되어 앞으로 나아간다는 모티브는, 축제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들에게 지지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여러분들이 무대에 출연한 일한 양국의 아티스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일 광장'이라는 공간을 행사장 내에 마련하여, 크게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일 광장' 주변은 참가자들의 열기로 숨 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외, 올해도 60개 이상의 일한 기업·지자체 부스와 체험·이벤트 부스가 출품되어 일한 양측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푸드 부스는 많은 관계자의 협력으로 더욱 충실해져, 샤브샤브, 라멘(라면), 카레, 고로케, 각종 빵, 맛 달걀과 음료 등 다양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지자체 등의 부스도 매년 관객 동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올해는 포켓몬을 떠올리게 하는, 행사장 내에 숨어 있는 일본 전국 각 지역의 캐릭터를 찾는 게임을 실시한 일본자치체국

제화 협회(CLAIR) 부스에 경품을 받으려는 긴 줄이 생겼습니다.

행사장의 메인 스테이지에서 열린 무대 공연은, 하나같이 훌륭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지만, 굳이 꼽자면, 서울 일본인학교와 서울시소년소녀합창단 학생들의 합창, 특히 'Together'라는 곡을 들었을 때는 앞으로 양국 관계를 깊어질 젊은 세대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한국의 K-POP과 드라마의 인기가 만만치 않은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부른 싱어송 라이터 '아마쓰키(天月)'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한국 전역에서 몰려든 팬이 COEX 행사장을 가득 메운 것을 보며, 한국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J-POP에 대한 인기가 정말 높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니가타현 사도가시마(新潟県 佐渡島)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일본 전통북인 와다이코(和太鼓) 연주집단 '고도(Kodo, 鼓童)'의 퍼포먼스도 압권이었습니다. 올해 K-POP 그룹으로는 'April'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전통 춤인 '가베놀이'를 '상명 한오름무용단'의 공연으로 처음 감상할 기회를 얻었으며, 언제나처럼 '사물놀이' 대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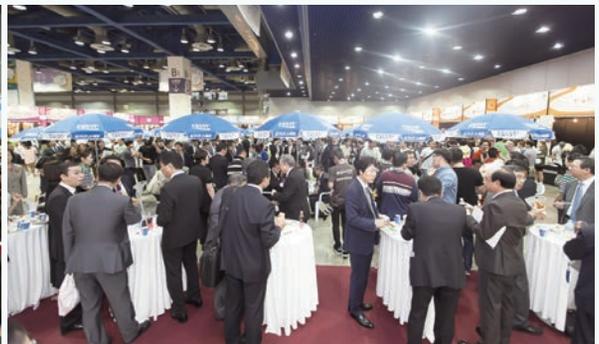


김덕수 선생과 '요사코이 아리랑'을 이끌어 주고 계시는 이요베 세쓰코 선생, 그리고 '약동'에 의한 일한전통예능의 컬래버레이션이 피날레를 장식했고, 마지막은 출연자와 관객이 하나로 어우러져 춤을 추며 끝을 맺었습니다. 피날레에는 1년에 걸쳐 매달 준비 회의를 거듭한 운영위원회 여러분, 당일 행사장에서 우리와 함께 땀 흘려 주신 500명 이상의 학생·시민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일한 양측 관련조직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3차례 참석했는데, 돌이켜보면 2014년에는 윤병세 장관이 한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처음 참석하여, 주한일본대사와의 첫 회동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2015년에는 '일한국교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해 양국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코엑스 행사에 앞서 신촌 연세로에서 '조선통신사' 등의 퍼레이드 등을 실시하여, 이틀 동안 추계 9만 명의 시민이 즐기며,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습

니다. 올해 축제도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세련된 형태로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미치지 못한 측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의 반성은 내년 이후의 행사에 제대로 반영될 것입니다.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은 양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간혹 '양국 관계에 문제가 많을 때 문화교류를 추진해도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많은 출연자와 시민이 교류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 봤자 축제, 그래도 축제(たかがおまつり, されどおまつり,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이라는 부연 설명과 함께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은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의 창립 멤버이기도 한 다카스기 노부야(高杉暢也) 명예운영위원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인데,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한일축제한마당 in Seoul'에 어떤 처지에서 참가하게 되든, 벌써부터 정말 기대가 됩니다.





부여군과 아스카무라 사신(四神)이 지켜주는 국제자매도시

아스카무라

아스카무라(明日香村)는 나라(奈良) 분지의 동남부에 자리해, 오사카(大阪) 시내와 간사이(關西) 국제공항에서 1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아스카무라는 1300년 전 일본의 도읍지였던 고도(古都)로 궁터와 사찰터, 고분 등의 역사적 자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동아시아에서 국제교류로 꽃을 피운 '일본문화의 발상지'로서 지금도 많은 흔적이 남아 있는 지역이다. 또 1980년부터 그 귀중한 역사적 자산과 풍토를 보존하고 차세대에 계승하기 위해 특별조치법인 통칭 '아스카(明日香)법'에 따라 토지의 이용 및 경관을 엄격히 규제하고, 주민의 노력을 바탕으로 보존을 위한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져, 근대화가 진행된 도시와는 달리 '일본의 고향'이라는 호칭에 걸맞은 옛날과 다름없는 정감 어린 농촌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자매도시 결연을 맺게 된 계기

일본의 대표적인 고도인 아스카무라와 한국의 서해에 면한

충청남도 남단의 백제 고도 부여군은, 1972년 11월 28일 부여군에서 조인식을 갖고 우호·신의·평화를 기조로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해, 두 지역의 영원한 우호를 다짐했다. 이 자매도시 결연의 계기는, 1971년 아스카무라 문화재 연구의 1인자인 아보시 요시노리(網干善教) 간사이대 교수(당시)가 백제시대의 왕릉으로 알려진 능산리(陵山里) 고분군의 벽화를 보고 감탄한 것이 시작이다.

일본 문화의 기조이자 일본인의 정신적 기반이 된 '불교'는 백제시대 도읍지였던 부여군에서 아스카무라로 전해졌다. 이후 아스카데라(飛鳥寺, 호코지(法興寺)로도 불린다) 등의 대사찰이 다수 건립되는 등 '아스카 지방과 백제·고대 한반도와의 교류'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으며, 지금도 유례없이 많은 발자취를 두 지역에 남기고 있다.

이듬해인 1972년 3월, 청룡, 주작, 백호, 현무의 '사신'이 그려진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 벽화와 마찬가지로 사신이 그려진 아스카무라의 다카마쓰즈카(高松塚) 고분 벽화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일한 고고학계의 교류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72년 11월 부여군과 아스카무라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

그 해 5월에는, 일본 전체 불교도에 의해 불교전래사은비(仏教傳來謝恩碑)가 부여군 백마강 주변에 건립되었고, 이 제막식에 기시타 리이치(岸下利一) 아스카무라 촌장이 참석해 정찬환 부여군수와 친교를 다지며 자매도시 결연 체결 의사를 밝혀 공식적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어 6월, 정찬환 부여군수와 이대의 대한민국불교회 장로는, 일본불교전래사은 사업회의 초청으로 아스카무라를 방문했을 때, 아스카무라가 가진 역사적 배경이 부여군과 유사성·동일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알고 크게 놀랐다. 이렇게 역사적 인연이 배경이 된 사람의 인연과 그 밖의 여러 과정을 거쳐 아스카무라와 부여군은 1972년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게 되었다.

자매도시 결연 협정서에서는 '주민 각계각층 대표단의 상



자매도시 결연 40주년 기념식전

호교류' '방문단체의 상호환영' '민속문화예술의 상호교류' '산업교류 및 관광진흥에 관한 상호협정' '양국의 역사 문화에 관한 정보 및 연구성과의 교환'을 선언했다.

지금까지의 교류 과정

4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부여군과 아스카무라의 자매도시 교류는, 교류 초기에는 양측의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인재교류·문화교류가 주를 이루었다.

또 1987년 5월 11일에는 더한층의 양국 우호친선을 지향하며, 아스카무라 오아자아스카(明日香村大字飛鳥)에 있는 '아스카데라(飛鳥寺)와 충남 예산군에 있는 '수덕사'가 자매사원협정서 조인식을 가져, 일한 불교를 통한 교류라는 새로운 분야의 교류도 시작되었다.

자매도시교류 20주년이 지난 1990년대부터는 향후 우호 친



부여군 능산리 고분군의 '청룡' 벽화



아스카무라 기토라 고분의 '청룡' 벽화



제3회 국제친선교류교환회, 부여군 석성중학교와 아스카무라 쇼토쿠중학교

선·상호 이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협정서를 체결하고, 직원의 상호 파견 등을 통한 인적 교류 및 문화제 등에 상호 예술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교류와 스포츠교류의 강화를 선언했다.

아스카무라에서는 백제·한국문화를 배우는 ‘국제교류강좌’ 수강생이 친선 방문단으로 부여군을 방문했으며, 부여군에서는 중·고교와 사진협회 관계자 등이 문화 학습을 목적으로 아스카무라를 방문해 자매도시교류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또 교류의 주축이 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아스카무라에서는 문화재과장 보좌인 기타무라 노리히코 씨(北村憲彦, 현재 퇴직)가 1993년 9월부터 약 반년간 부여군청 문화예술과에 파견되었으며, 또 부여군에서는 국제교류원(CIR) 남미경 씨가 1995년 4월부터 약 3년간 아스카무라 교육위원회에 파견되어 자매도시교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확대되는 자매도시 교류와 미래를 향해

21세기부터는 아스카무라 쇼토쿠(聖徳)중학교와 부여군 석성중학교가 자매학교 결연을 맺고 ‘학생·교사·학부

모·교육 관계자의 상호 교류를 통한 교육 발전과 우호를 위해 노력’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활동과 문화, 정보량 양 교가 협력해 상호 소개’하기로 약속했다. 행정 직원 및 중학생의 상호 교류로서 홈스테이 등 가족 단위의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자매도시교류 ‘일한의 가교’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여 동 세대의 학생과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며 양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향토애를 키웠다. 이들 교류는 국제적 감각을 몸에 익히기 위한 귀중한 기회로서 현재도 실시되고 있다.

지금까지 부여군과 아스카무라의 교류의 인연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큰 인생의 양식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부여군과 아스카무라의 교류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우호·친선 교류 및 양국의 한층 발전을 위해 모델이 되는 자매도시교류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가고자 한다.

URL <http://www.asukamura.jp/>

(집필: 아스카무라, 협력: CLAIR, Seoul)

Cool Japan!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찾아



일본 외무성의 청소년교류사업 'JENESYS 2016'의 일환으로 한국 고등학생 72명(인솔자 4명, 학생 68명)이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이번 한국청년방일단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에세이와 면접을 통해 선발한 학생과 한국의 각 지역에서 실시된 각종 행사에서 수상한 학생으로 구성되었다.

일행은 '일본 지방의 매력과 지산지소(地産地消 :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 라는 테마 아래, 홋카이도 북부지역(가미카와, 아사히카와, 치토세, 삿포로) 등 여러 도시를 방문해 'Cool Japan'으로 표현되는 일본의 다양한 매력을 발견하고 돌아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일본의 일반 가정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홈스테이, 고등학교 방문, 기업 방문,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체험 활동(잼, 아이스크림 만들기), 유카타(浴衣) 입기와 노가쿠(能楽) 체험 등의 일본전통문화 체험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귀국 후, SNS 등을 통해 일본의 매력을 한국에서 알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의 진로를 정해준 일본 방문 프로그램

이재현 대원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일본어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이 주관하는 '2016 전국고등학생일본어스피치대회'에 참가해서 동상을 수상하며, 이번 일본 방문 프로그램의 참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참가 전, Cool Japan 리포터 사전설명회(7월 19일(화))가 열렸다. 여기서 전국에서 온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 일본 방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나처럼 일본어 스피치대회, 일본문화 퀴즈대회, J-POP 가요대회 등 각종 대회로 선발된 친구들 외에도 에세이와 면접으로 선발된 Cool Japan 리포터도 있어, 정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9박 10일 동안 JENESYS 2016 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전국에서 모인 총 68명의 고등학생들이 34명씩 3단과 4단으로 나누어졌다. 나는 3단으로 배정 받았고 SNS 담당을 맡게 되었다.



3단 친구들이 SNS를 활용해서 일본의 매력을 알리는 것을 확인하고, 친구들에게 사진을 받아 SNS에 올리기도 했다. 나는 일본 방문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새로웠다. 또 일본의 전통예능인 노가쿠(能楽)와 료칸(旅館)을 직접 체험한 것과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 및 홈스테이도 잊지 못할 추억이다.

이번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고, 일본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 중학교 시절 별다른 꿈 없이 공부하던 내가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나중에 외교관이 되거나, 국제회사에 취업하거나, 외국어 학과 교수가 되는 등 한국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에 맞춰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고민하고 있

다. 또 이번 일본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어 정말 좋았다. 뜻이 맞는 친구들과끼리 따로 단톡방(SNS 단체 대화방)을 만들고 매일매일 일본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며, 대학생이 되어 같이 일본에 갈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EJU(일본유학시험)를 통해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친구, 일본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

나는 SNS 담당자로서 성과보고회 날(8월 19일(금)) 단을 대표하여, 이번 일본 방문프로그램의 일정, 소감 등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다. 일본정부의 청소년교류사업의 명칭인 JENESYS(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를 JAPAN'S ATTRACTION(일본관광지) EXPERIENCE(경험), NEW PEOPLE(새로운 사람들) EXCHANGE OF CULTURE(문화의 교류) Schedule officially(공식적 일정) Year-round(연중 계속될 Cool Japan 리포터로서의 계획) SNS(소셜네트워크)의 앞 글자를 따 우리들만의 JENESYS로 재해석하여,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스피치 발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대원외고 일본어 선생님(박병춘, 유보영, 梶原なおこ 선생님), 항상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담임 선생님(박인선 선생님), 부모님 등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겐지와 스시시로

상수동에 위치한 이자카야 '겐지와 스시점 '스시시로'. 홍대 인근에서 가성비 좋은 일본음식전문점 중 하나라는 입 소문이 난 곳이기도 하다. 이번 호에서는 이 점포들을 운영하고 있는 한재민 대표와의 인터뷰를 통해 일본요리의 매력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일본 요리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어릴 때부터 식당을 경영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일본 음식점에서 요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방 안에서 진행되는 재료 손질 과정 등은 생각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청결한 오픈식 주방에서 제공되는 깔끔한 초밥과 사시미를 보고 일본 요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 요리는 과한 양념을 쓰지 않고 식재료 그 자체 만으로도 좋은 메뉴가 된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가 시작이라, 어찌먼 가장 빠른 단계부터 요리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또 양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구입하느냐에 따라 음식의 맛이 좌우되는 것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일본 요리를 배우기 위해 나카무라 아카데미에 들어가기 전, 이미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배우고 나서 메뉴 등에 변화가 있었나요.

일본 요리를 오랫동안 하면서 레스토랑도 개업하고 지점을 넓혀 여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었고, 나 자신이 기본적인 것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나카무라 아카데미 상급반에



6개월 정도 다녔습니다.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선배들로부터 막연하게 배웠던 일본 요리 과정은 물론 조리 방법 등에 대해 평소에 가져왔던 궁금증도 풀고, 정확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게 운영에 있어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아카데미에서 마련한 일본 가나자와의 가이세키 요리점의 특별 강습회 등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만든 메뉴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암 대게의 껍질을 넣어 우려낸 육수로 밥을 짓는 것에서 착안하여, 이 육수를 이용한 볶음우동, 파스타 메뉴를 만들었더니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스시시로’라는 가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본에 갔을 때, 중저가의 작은 초밥 집이 많은 것을 보고, ‘왜 한국에는 작은 규모지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초밥을 제공하는 가게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일본과 한국의 유통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동네 마트만 가도 작은 단위로 합리적인 가격의 다양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데, 작은 규모의 가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유통이 발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량 구매 위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사시미(생선회)를 전문으로 하는 이자카야(선술집) ‘젠지’를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가게를 운영하면 대량으로 구매한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의 초밥으로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스시시로’를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젠지’와 ‘스시시로’ 모두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낄 때나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저희 가게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만족스러워하실 때입니다. 장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도, 항상 잘 먹었다고 말씀해줍니다. 심지어 직원들을 위해 간식을 사다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된 것에 대한 고마움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표현해주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또 저희 가게가 손님들에게 편한 가게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도 느낍니다. 단골로 오시는 손님이 지인을 데리고 와서 열렬히



저희 가게를 소개하며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설명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뿌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일본 요리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일본 요리에는 배려가 있습니다. 먹기 불편한 식재료는 부드럽게 조리하거나 드시는 분의 연령에 맞춰 크기를 조정하는 등 단순한 서비스 이상으로 주방에서도 요리를 통해 배려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일본 요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나 목표는.

텐푸라(일본식 튀김) 전문요리점을 다시 운영해 보고 싶습니다. 튀김은 식재료를 그대로 튀겨내는 단순한 조리법이지만 거깃 없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세한 튀김 기술은 적어도 20년 이상 그 실력을 갈고 닦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텐푸라 코스 전문요리점을 운영했을 때는, 제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너무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라 다시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이탈리아 요리나 태국 요리 등 다양한 가게를 운영해 왔는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하고 싶은 요리를 하면서 지내고 싶습니다.



구마모토성 - 사쿠라노바바 조사이엔

구마모토



Kumamoto Prefecture

응원 감사합니다. 팀 구마모토(熊本) 도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 현은 일본 남서부, 규슈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발생한 구마모토 지진으로 구마모토현은 여러 곳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진 발생 직후부터 한국 정부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은 충남도청을 비롯해 한국 국민 여러분께서 따뜻한 지원과 격려의 말씀을 보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까지 보내 주신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마모토 현민은 한 마음으로 재건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푸른 대자연과 사계절의 산해진미, 일본 유산으로 선정된 히토요시쿠마(人吉球磨) 등 구마모토의 매력은 지금도 변함없이 그대로입니다. 꼭 한번 구마모토를 찾아, 보고, 먹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마모토의 주목할 만한 곳

미인 탕이 많은 다마나(玉名)·야마가(山鹿)·기쿠치(菊池)의 구마모토 현 북부 지역, 한가로운 산촌 풍경이 펼쳐지는 중앙 지역, 어패류가 맛있는 아마쿠사(天草) 지역과 아시키타(芦北)·미나마타(水俣) 지역, 운치 있는 작은 교토 히토요시쿠마(人吉球磨) 지역, 모두 볼거리가 넘친다!



츠준교



기쿠치 온천



구로카와 온천

■아마가등롱 축제(山鹿灯籠まつり) - 아마가 시(山鹿市)
 예로부터 계승되어 온 아마가의 여름 풍물시. 종이로 만든 전통공예품 아마가등롱(山鹿灯籠, 대나무나 쇠 따위로 살을 만들어 종이나 형짚을 씌우고 그 안에 등잔을 넣어 사용하는 등)를 머리에 쓰고, 1000명의 여성이 우아하게 춤을 추는 센닌등롱오도리(千人灯籠踊り)는 꼭 보시기 바란다.

■기쿠치 온천(菊池温泉) - 기쿠치 시(菊池市)
 미인탕으로 알려진 기쿠치 온천. 역사 깊은 마을 안에는 족탕도 여러 곳에 있어, 이를 순례하며 산책도 즐길 수 있다.

■구로카와 온천(黒川温泉) - 미나미오구니마치(南小国町)
 구로카와 온천 '뉴토테가타(入湯手形, 일종의 자유이용권)'가 2016년에 30주년을 맞이했다!

■구마모토 성(熊本城) - 사쿠라노바바 조사이엔(桜の馬場城彩苑)
 구마모토 현 내 각지의 먹거리와 선물이 즐비한 조사이엔은 활발히 영업 중이며, 구마모토 성은 니노마루 공원(二の丸公園) 등에서 조망할 수 있다.

■츠준교(通潤橋) - 아마토 정(山都町)
 높이 20.2m, 길이 75.6m의 일본 최대의 아치형 석조 수로교. 에도시대(江戸時代) 히고(肥後, 구마모토의 옛 지명) 석공들의 기술을 결집해 만들었으며, 일본의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현재, 통행 불가).

■히나구 온천(日奈久温泉) - 야츠시로 시(八代市)
 방랑 시인·다네다 산토카(種田山頭火)가 특히 좋아해서 자주 찾았던 히나구는, 야츠시로카이(八代海) 바다에 면한 온천지다. 명물 '히나구 치쿠와(ちくわ, 생선살을 얇은 대나무에 발라 찌거나 구운 어묵)를 한 손에 들고 뒷골목을 걸어 보자.

■히토요시 온천(人吉温泉) - 히토요시 시(人吉市)
 히토요시 온천은 일본의 3대 급류 중 하나인 구마가와(球磨川) 강을 조망할 수 있는 온천과 정겨운 옛날식 대중탕 등 개성 강한 온천이 많다. 구마 소주(球磨焼酎)와 온천수 등으로 만든 '히토요시 온천 칵테일'도 즐길 수 있다.

■사키츠 교회(崎津教会) - 아마쿠사 시(天草市)
 아마쿠사의 작은 어촌에 위치한 고딕 양식의 사키츠 교회는 일본에서도 보기 드문 다다미가 깔린 교회다. 아름다운



히나구 온천



히토요시 온천



유노코 온천



유노츠루 온천



가미야마쿠사 온천마을



시모다 온천

어촌 경관은 ‘국가의 중요문화적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 유노코 온천(湯の児温泉) · 유노츠루 온천(湯の鶴温泉)
- 미나마타 시(水俣市)

미나마타 시에는 조용한 산속 온천장 · 유노츠루 온천과 시라누이카이(不知火海) 바다에 면한 리조트 온천 · 유노코 온천이 있다.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가미야마쿠사 온천마을(上天草温泉郷) - 가미야마쿠사 시
시모다 온천(下田温泉) - 야마쿠사 시

맛있는 해물 요리를 먹고 싶다면 야마쿠사로 가자!

가미야마쿠사 온천마을에서는 기분 좋은 바닷바람을 맞을 수 있는 온천과 석양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는 등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온천 숙박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시모다 온천은 약 700년 전 백로가 상처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발견했다는 오래된 탕이다. 무색 투명한 물은 피부를 촉촉이 적신다. 요사노 히로시(与謝野寛)를 비롯한 5명의 시인들이 여행했던 ‘고소쿠노쿠츠(五足の靴, 규슈의 히라도 · 나가사키 · 시마바라 · 야마쿠사 지역 등)’ 지역과도 가까운 온천마을이다.



일본 유산

사카라 700년의 세월이 낳은 보수와 진취의 문화

- 일본에서 가장 풍요로운 벽촌, 히토요시구마

700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사카라(相良) 가문이 통치했던 히토요시구마 지역. 사찰과 불상군, 가구라(神楽,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연주하는 일본 고유의 무악) 등, 신앙을 믿으며 즐기고 지키는 문화가 길러졌고, 영주로부터 백성까지 하나가 되어 지역을 가꾸는 정신을 갖게 되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신사와 불각, 축제, 식문화 등 41개의 유형·무형문화재로 구성된 자산이 일본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집필: 구마모토현, 협력: CLAIR, Seoul)



사키즈 교회



구마가와



국보 아오이 아소신사

2017년도 JET프로그램 모집요강

JET프로그램(The 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 : 여학 지도 등을 행하는 외국 청년 유치사업)의 약칭으로 일본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업무 및 학교에서의 외국어 지도를 담당하고 있다. JET프로그램은 일본 정부(총무성, 외무성, 문부과학성 및 자치체국제화협회)의 협력 하에 지방공공단체 등이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외국정부의 지원, 협력 하에 1987년 처음으로 시작하여 2016년도에는 40개국으로부터 4,952명이 참가하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http://www.kr.emb-japan.go.jp/cult/JET.html>)



국제교류원 (CIR : 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

일본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 담당국 등에 배치되어 국제교류 활동 업무에 종사한다. 직무내용은 임용단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1) 국제교류 이벤트 협력, 조연, 통역, 외국어 간행물 등의 번역 및 감수
- 2) 임용단체 직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 강좌
- 2) 지역주민(학교방문 포함)의 이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강좌 등의 교류활동
- 3) 외국인 주민의 생활지원 활동
- 4) 민간 국제교류 단체의 사업활동에 대한 조언, 참여
- 5) 자매(우호)도시 교류 사업에서 수행 통역 등 방문객 응대
- 6) 한국인 관광객 유치사업

응모 요건

1.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것 (한국 영주권자 제외)
2. 4년제 대학의 학사 취득자 또는 2017년 4월 이전 취득 예정자 일 것
3. 일본어능력시험 합격자일 것 (N1 / 2011년 실시한 시험부터 현재까지)
4. 응모 시까지 2007년 이후 합계하여 6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것
5. 심신이 건강하고 일본 지방 생활에 적응력이 있을 것
6.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지역 주민과의 친화력, 사교성이 있을 것
7. 일본에서 직무에 종사하여 책임감을 갖고 임용기간의 직무를 다할 의지가 있을 것
8. 본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일본과 한국과의 가교로서 적극적으로 활약할 의지가 있을 것

시험 응모와 실시 방법

1. 선고 방법

JET프로그램 선고 시험은 '스크리닝 시험(필기시험, 이하 '제1차 시험'이라 한다)과 '서류·면접시험(이하 '제2차 시험'이라 한다)'로 나뉘어 진다.

2. 제1차 시험

(1) 원서 교부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주부산일본국총영

사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각 대학 일본어과 사무실에서 교부한다.

(2) 원서 접수 :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JET프로그램 담당자 앞

※ 접수 후 수험표 및 시험안내문 배부

가. 주소 : 우편번호 0313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4

나. 방문 접수 : 10월 19일(수) ~ 11월 9일(수)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JET프로그램 상담실

다. 우편 접수 : 10월 19일(수) ~ 11월 4일(금) 소인까지만 유효

(등기에 한함, JET프로그램 응모 서류 라고 명기할 것)

(3) 응모 서류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가. 응모원서 원본 1부, 수험표(2장 1set) 1부,

사진원본 3매를 응모원서 및 수험표에 부착할 것

※ 사진은 가로 x 세로 (3.5cm x 4.5cm),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컬러 프린트 등 불가)

나. 일본어 성적표 제출 (복사본 가능, 합격증은 제출할 필요 없음)

JLPT N1 성적표(2011년도 실시한 시험부터 현재까지)

※ 공무원 및 교사는 1차 시험 합격 후,

소속장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4) 시험 출제형식 : 필기 시험(객관식, 주관식)

(5) 시험과목 : 한국사정(한국어 포함), 일본사정

(6) 시험 일정 : 2016년 11월 13일(일) 14:00~16:00 (120분/2과목)

(7) 시험 장소 : 서울, 제주

· 서울 : 서울 풍문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3길 4 / 지하철 3호선 : 안국역 1번출구)

· 제주 :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세기빌딩 8층)

(8) 합격 통지

1차 선고의 합격 여부는 2016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3. 제2차 시험

제2차 시험은 2016년 12월 하순 지정일에, 제1차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실시한다.

(※ 제2차 시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한다.)



일본 현지 취재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과 함께 일본의 다양한 정보를 한국 분들에게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는 일본 외무성이 실시하는 청소년교류사업인 'JENESYS 2016'의 일환으로 지난 9월 22일(목)부터 28일(수)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일본 방문 중, 일행은 9월 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도쿄 히비야공원(日比谷公園)에서 개최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에도 참여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지난 2005년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을 기념한 '한일 우정의 해'의 주요 사업으로 시작되어, 매년 서울에서 개최되어 왔다. 2009년부터는 한국과 일본이 함께 만드는 행사라는 의미를 살려 매년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일축제한마당은 수 많은 한국인과 일본인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최대 규모의 한일교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한일축제한마당은 올해 제 8회

째를 맞이하여 '함께 만들자 새로운 50년'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었고, 이틀에 걸쳐 약 5만명의 방문객이 이번 축제를 찾았다고 한다.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로 활동하는 13명은 자원봉사자로서 이 행사에 참여, 고구려 전통의상 시착 체험 및 고마군(高麗郡) 건군 1300주년 기념 전시 부스의 운영을 도왔다.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동시에 고구려 전통의상 시착을 도와주며 일본인 관람객과 직접 교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일본문화원 리포터(2기)가 직접 참여한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 관련 소식과 더불어 6박 7일 간의 일본 방문 프로그램 체험담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일본문화원 공식 블로그 blog.naver.com/bunkain

일본문화원 공식 Facebook www.facebook.com/j.munwhawon

고마신사 방문기

구성전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에서 일본문화원 리포터는 고구려 시대의 의상 시착 부스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했다. 부스 운영에 참여한 후, 우리는 사이타마현(埼玉県) 히다카시(日高市)에 위치한 고마신사(高麗神社)를 방문했다.

76년 신설된 고마군의 중심지인 고마신사는 고마군의 초대 군수로 임명된 고마노고키시 작코(高麗王若光)의 덕행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그 영혼을 모시는 곳으로서 일본에서는 ‘출세의 신사(出世の神社)’로 유명하다. 신사 입구에는 장승이 늘름하게 서 있는데, 이 장승은 한국에서 제작된 것이라 한다. 글을 새긴 사람 또한 한국인으로, 고마신사가 한국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념비적인 물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는 수많은 신사가 존재하지만 이 같이 장승이 지키는 신사는 고마신사가 유일하다고 한다.

1300년이 흐른 지금, 일본 속 고구려 역사가 이어져 온 고마신사는 한국과 일본의 우호협력 관계를 상징하는 역사적 인연이 깊은 곳이다. 양국 관계에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가 지금까지도 잘 보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함께 공생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가토로 라인쿠다리

이승환

‘한일축제한마당 2016 in Tokyo’ 행사를 마치고, 우리는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의 지치부시(秩父市)를 방문했다. 포도를 직접 수확해 보고 우동 면발을 반죽해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고, 도쿄로 돌아가기 전에 나가토로정(長瀬町)에 들렀다.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호텔이 가득했던 도쿄 히비야(日比谷)에 비해 나가토로는 도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화려한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었다. 나가토로는 벚꽃과 진달래가 유명해 봄이 되면 도쿄에서 드라이브를 온다고 한다.

이번에 일본문화원 리포터가 체험한 것은 나가토로 라인쿠다리(ライン下り, 급류타기)다. 나가토로 라인쿠다리는 지치부 철도(秩父鉄道)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나가토로정을 길게 가로지르는 아라카와(荒川) 강을 따라 배를 타고 따라 내려가는 급류타기 체험이다. 나가토로역이 있는 이와타타미(岩畳)에서 출발하여 북쪽에 있는 다카사고바시(高砂橋)까지 가는 코스를 체험했다. 길게 느껴졌던 3km의 코스는 약 15분 정도로 끝이 났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문화원 리포터 모두 아쉬움을 뒤로한 채 우리들의 항해를 책임져 주신 사공과 작별의 인사를 남기고, 고즈넉하고 풍부한 자연이 아름다운 나가토로를 두 눈과 마음속에 담아왔다.



제5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

대학생일본어연극대회가 11월 19일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주최로 개최된다. 전국의 일본관련학과 소속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본어 학습 성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각 대학 일본관련학과 학생간의 상호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 연극대회의 예선을 통해 선발된 5팀이 본선 경연을 펼치게 되며, 입상 팀에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9박 10일간의 일본방문 프로그램 참가자격과 격려금 등이 수여된다.

일시 11월 19일(토) 14:00~18:00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주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사)한일미래포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협찬/후원 한국미쓰이물산주식회사, 한국스미토모상사주식회사, 한국미쓰이상사주식회사,

한국마루베니주식회사, 수림문화재단 한국일본학회, 시사일본어학원

문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02-765-3011 (120, 123, 153)



SJC 매듭클럽 전시회

SJC(서울일본인회) 매듭클럽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가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개최된다.

일한 우호 친선 및 작품 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부터 격년으로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서 열리고 있다. SJC 매듭클럽 회원들은 주2회 매듭 강습회를 열어 한국인 매듭 강사의 지도를 받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노리개와 액세서리, 벽걸이 장식 등의 작품 약 10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입장무료.

일시 11월 8일(화)~11일(금)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2층 실크갤러리

주최 SJC 매듭클럽

후원 주한일본대사관

문의 maedeup2016@gmail.com(일본어만 대응가능)

11월 일본영화상영회 세계 3대 영화제 수상작 특선

11월 일본영화상영회는 세계 3대 영화제(프랑스 칸영화제, 독일 베를린영화제, 이탈리아 베니스영화제) 수상에 빛나는 명작을 상영한다.

1951년 제15회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부터 1963년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수상작 '무사도', 1983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 '나라이마 부시코', 2011년 제68회 베니스영화제 신인배우상(소메타니 쇼타, 니카이도 후미 공동수상) 수상작 '두더지' 등 장르와 시대를 초월한 명화 총 6편을 상영한다.

장소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3층 뉴센추리홀

시간 14:30분(14:00부터 입장)

11월 1일(화), 28일(월) <두더지 ヒミズ> 2011년 제68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신인배우상 수상

11월 2일(수), 29일(화) <무사도 武士道残酷物語> 1963년 제13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수상

11월 3일(목), 30일(수) <나라이마부시코 櫛山節考> 1983년 제36회 칸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11월 22일(화) <라쇼몽 羅生門> 1951년 제15회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

11월 23일(수) <아무도 모른다 誰も知らない> 2004년 제57회 칸국제영화제 최우수 주연남우상 수상

11월 24일(목) <자토이치 座頭市> 2003년 제6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은사자상 수상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개설 50주년 기념 2016 울산재팬위크

올해는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이 개설한지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다.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에서는 이처럼 의미 있는 해를 기념하여 총영사관 개설 2년 뒤인 1968년 일한 양국간 첫 자매도시협정을 맺은 울산광역시에서 '2016 울산재팬위크'를 개최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모든 행사 무료.

기간 11월 3일(목)~11월 11일(금)

장소 울산대학교

주최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후원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KBS울산방송국, 울산MBC, UBC울산방송, 경상일보, (사)울산광역시 한일친선협회, 동우화인켄(주)

문의 주부산일본국총영사관 공보문화부(051-410-6124~6)

<http://www.busan.kr.emb-japan.go.jp>

◎강연회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주부산일본국총영사 강연회

일시 11월 3일(목) 15:00

장소 울산대학교 건축관(44호관) 208호

◎공연

오카다 시노부(岡田しのぶ) 콘서트

1999년 '에치고 코이우타(越後恋唄)'로 데뷔. 지난해 발표한 '쇼부(勝負)'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엔카(演歌) 가수이며, 한국의 월드채널(국제구호개발 NGO) 일본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에서는 본인 곡뿐만 아니라 한국인에게 친숙한 인기 엔카(演歌), 한국 전통가요 등을 들려줄 예정이다. 마이크와 루미(舞川るみ), 김진호가 게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선착순 입장(자유석).

일시 11월 3일(목) 18:30

장소 울산대학교 해송홀(9호관)

◎워크숍

일본 다도 시연 및 시음회

'한 잔의 차로 평화로움(Peacefulness)'을 이라는 주제로 다도를 통한 일본의 전통과 화(和)의 정신을 400년 이상 계승해 오고 있는 일본 다도의 최대 유파인 우라센케(裏千家) 소속 다도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본 다도의 멋과 맛의 정신세계를 배워본다. 참가자는 사전 접수 필요.

일시 : 11월 5일(토) 13:00~14:00 / 16:00~17:00

장소 :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후지노마(3층)

강사 : 정귀순(우라센케 부산지부 부회장)

일본 꽃꽂이(生花) 워크숍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꽃꽂이 종가로 알려진 이케노보(池坊) 꽃꽂이서 전문가를 초청하여 일본 꽃꽂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참가자들이 직접 일본 꽃꽂이를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참가자는 사전 접수 필요.

일시 : 11월 6일(일) 13:00~15:00

장소 :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412호

강사 : 박영순(이케노보 한국서울지부장)

에테가미(絵手紙) 워크숍

'서투러도 괜찮아 서투른 게 더 좋아'를 모토로 1978년부터 시작된 에테가미는 일본 붓을 사용하여 꽃과 채소, 과일 등 주변의 사물들을 소재로 직접 그리는 그림엽서다. 그림에 자신의 마음을 담는 것이 포인트. 참가자는 사전 접수 필요.

일시 : 11월 10일(목) 15:00~17:00

장소 : 울산대학교 시청각교육관 412호

◎전시회

일본문화전시회

일본의 풍물모형, 인형, 완구, 민예품, 세계유산모형이 전시되며, 겐다마(剣玉), 다루마 오토시(達磨落し) 등 일본 놀이기구와 합피(法被), 유카타(浴衣) 같은 전통 의상 체험이 가능하다.

일시 : 11월 3일(목)~11월 11일(금) 10:00~18:00

장소 : 울산대학교 건축관 전시실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 여행만으로는 알기 힘든, 일본 속으로 들어가 겪은 허둥지둥 좌충우돌 유학생살기

오~키니!! 최현정의 유학보고서

1년에 한번 매년 11월에 있는 우리학교 축제 기노사이(木野祭). 교내 곳곳에 옹기종기 자리를 펴면 그곳이 작은 벼룩시장.

졸업을 앞 둔 졸업반 학생들은 이 참에 자신의 살림들을 헐값에 정리하고.

오옷! 저 피규어 세트 어렵게 구한거잖아~

결국 다 짐이야~ 떠날때는 가볍게.

모자, 컵, 그릇, 쿠키등... 예술학과 학생들은 손수만든 자신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도 하는데

사실, 기노사이는 학교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마을의 축제이기도 하다.

와아~ 1000엔의 풍성한 행복.

엄지 척!
총동구매 주의~

축제의 다양한 포장부스 중에도 매년 출점하는 각 나라 유학생들의 부스.

그 중에도 우리나라 유학생 부스는 단연 인기. 부스의 이름은 '아줌마'.

흠뻑 젖은 모두가 팔을 걷어 부치고 달려들어 비로소 화합되는 날. 우리의 메뉴는 간단하다. 그 중에도 인기 넘버원은 배추김치.

화르르~
본격적인 중화요리. 중국 유학생의 능수능란한 불쇼에 모두가 물개박수.

대륙의 불맛 그 진수를 보여주마!

호이~
그렇다면 우리도 아줌마의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어!

- 메뉴
- 김치
- 잡채
- 부침개
- 떡볶이

애들아 부침개 재료~

뚱뚱뚱~

뉘에뉘에~ 나가요~

찰떡덕
안! 이게 아닌데... 한! 뜨거

역시 본 고장의 맛~ 매년 축제 때마다 김치사러 올라와요. 잡채랑 부침개도 주세요.

매년 찾아 주시는 단골 손님~

떡볶이는 서비스요~

왕(王)상 원래 요리사 출신였나봐~

중국진영에 왕상이 있다면 사실 우리에게도 숨겨진 비밀병기가 있었으니 요리의 숨은 고수 S언니. 이 언니의 지휘하에 모든 일이 척척~. 학교까지 행차하신 언니전용 부엌 칼을 보고 모두가 압도 당하는데.

S언니의 음식솜씨와 최고 절정은 축제가 끝나는 날 우리끼리 뒷풀이. 언니 특제의 양념치킨. 끝세 그 맛이 기가 막혀~!!

와~ 일본에서 양념치킨을 먹게 되다니 꿈만 같아~

와아~ 매출이 쑥쑥! 유학생 장학회를 만들어도 되겠어~

후후~ 진짜 교토의 아줌마가 되어 버린 S언니다. ㅋㅋ ((^ ㅍ ^))

하지만 환호도 잠시, 후배들의 얼굴 한켠엔 먹구름이 몰려와...

근데, 언니가 곧 졸업하고 나면 누가 저 많은 김치를 담그지?...

현재 S언니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로 모두의 염원대로 교토에 거주하면서 유학생 후배들을 도우며 우리나라 요리를 일본에 널리 펼치고 있다는 흐뭇한 소식~*